

항공업 노하우 vs 막강한 자금력...애경-HDC '용호상박'

아시아항공 본입찰 마무리...새 주인 누가 될까

인수가격 1조5천억~2조원 추산...참여자들 매입가 미공개 7조원 넘는 부채·추가투자 부담 등 '승자의 저주' 우려도

아시아항공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본입찰이 7일 마감되면서 제2국적항공사를 누가 차지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호산업은 이날 오후 2시 아시아항공에 대한 본입찰 서류 접수를 마감한 뒤 "최종 입찰에서 모두 3개의 컨소시엄이 입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는 애경그룹, HDC현대산업개발, KCGI 등 3곳을 주축으로 하는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제주항공 명의로 입찰에 참가한 애경그룹은 막판에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에 참여시켰다.

사모펀드 KCGI는 전략적투자자(SI)를 찾기 위해 끝까지 고군분투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SI를 찾아서 함께 입찰에 참여했다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애경은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사 간 인수합병(M&A)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외 사례가 많다"면서 국내 3위 항공사인 제주항공을 운영 중인 애경그룹의 인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초 애경은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약점으로 거론됐지만, 운용자산이 1조원을 넘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손잡으면서

이런 시국이 불식됐고, 인수전 막판에는 한국투자증권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며 자금력을 강화했다.

현금성 자산만 1조5000억원에 달해 재무구조가 탄탄한 현대산업개발은 과감한 투자로 승부를 거는 미래에셋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입찰과 관련해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사업 다각화 전략을 펴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 인수 시 그룹이 보유한 면세점과 호텔 등 사업에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콩계 사모펀드 뱅커스트리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KCGI는 이날 본입찰에 참여하면서 SI를 포함했는지에 대해 함구했다.

KCGI가 유력 대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다면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는 구조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아시아나 인수는 애경과 현산의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진다.

본입찰 마감 직후 인수 참여자들이 매입 가격으로 얼마를 써냈을지도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금호나 입찰 참여자 모두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아시아나



'제2국적 항공사' 아시아항공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본입찰이 이들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소트리스트'(적격 인수후보)에 이름을 올린 애경그룹-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인수전에 진지하게 임하면서 일단 유력 인수 후보로 떠올랐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 항공 본사 사옥. /연합뉴스

인수 가격을 대략 1조5천억~2조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시아항공은 대한항공에 이은 국내 2위 대형항공사(FSC)이며 국제선 노선 70여개를 보유한 글로벌 항공사다. 취득이 어려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

어 항공업 진입을 노리는 기업에는 매력적인 매물이 될 수 있다.

다만, 7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아야 하고 항공기 노후화 등에 따라 추가로 적지 않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이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항공산업이 전체적으로 불황을 맞은 데다가 신규 LCC 3곳의 진입으로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된 점, 진행 중인 소송 등을 통해 돌발 채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리스크로 꼽힌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시아나 인수가 '승자의 저주'

아시아항공 본입찰 마감

인수 예상 비용 1조5천억원~2조원 안팎(추산)

구주 인수대금 4천억원 수준 (11월 4일 추가 기준)

신주 발행액 + 경영권 프리미엄(20~30%) + 6개 지회사 통매각

입찰금액 본입찰 3곳 참여 비공개

애경그룹-스톤브릿지 컨소시엄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

KCGI-뱅크스트리트 컨소시엄

1~2주 심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심사 협의 등 거쳐 내달 주식매매계약 체결

*구주=금호산업 보유 아시아나항공 주식(지분율 31%)
신주=아시아나항공 발행 보통주식

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금호산업은 지난 9월 예비입찰을 통해 3개 컨소시엄을 '소트리스트'(적격 인수후보)에 올렸고, 이날 본입찰을 마감했다. 금호는 접수한 서류를 바탕으로 최종입찰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미리 제시한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한 뒤 국토교통부의 인수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는 약 1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변동될 수 있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완료해 매각을 종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 초4부터 적용...실행 여부 차기 정부에 달려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 전환

수천억 달하는 재정지원금 부담 속 법적 다툼 일수도

7일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고(외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향후 6년 동안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이번 발표 실행 여부가 사실상 차기 정부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가 명시돼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을 고쳐서 이 학교 유형들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국회 논의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행정부가 단독으로 고칠 수 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바뀌면 시행령은 다시 바뀔 수 있다.

2022년 상반기에 들어갈 차기 정권이 내세우게 될 교육정책에 따라 자사고·외고 등의 존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맞춰 고교 서열을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고교학점제 시행 여부 역시 차기 정권의 의지에 달려 있다.

현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이런 내용이 여야 합의로 만드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발표됐다면 초·중·고교의 폐지를 두고 다시 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날 발표는 자사고·외고 등 당사자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이기에 정부

는 나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들을 일방적으로 없앤다는 반발과 함께 법적 다툼에 직면할 전망이다.

학교·학부모·학생들의 반발이 거셀수록 차기 정부의 부담은 가중되고, 이를 완화하고자 이들 학교를 되살릴지 검토할 가능성은 커진다.

교육부는 이날 자사고·외고 등이 2025년 이전에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지원·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대로 된 합의 절차가 없었던 데다가, 현재 대입 정시모집 확대까지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학교는 2025년까지 학생을 모집하면서 '버틸' 가능성을 전망했다.

대다수 자사고·외고가 2025년까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 때 이들 학교의 폐지를 두고 다시 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자사고·외고들이 '정치력'을 발휘해 자사고·외고 존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울

해 7월 상산고가 지정취소 위기에 몰리자 상산고를 지역구에 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51명이 교육부에 부동의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로 전환에 투입될 수천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아직 불투명하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에 의뢰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자사고의 일반고로 전환에 만 재정지원금이 7700억원 넘게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외고·국제고까지 고려하면 소요 예산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가 없어지고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것에 대비해 일반고의 교육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기획재정부는 인구 감소에 맞춰 교원은 물론 교육 예산을 점차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처간 정책 조율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연합뉴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본계약 체결 눈 앞

'이행보증금 납부 방식' 문제 일단락...이달 중 마무리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광주 도시공사와 우선협상 대상자간 본계약(사업 협약) 체결을 거쳐 본계약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주)서진건설은 최근 사업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에 '공모 지침대로 사업 이행보증금을 일시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서진건설 측은 금융권 지급보증서 형태로 사업 이행을 담보하겠다고, 공모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내용도 공문을 통해 밝혔다. 앞서 서진건설 측은 사업 이행보증금을 일시 납부가 아닌 분할 방식으로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광주시가 '공모 지침 위반'이라며 거부하자, 광주시가 일부 조건을 받아주면 보증금 일시 납부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역제한 한 바 있다. 상가시설 선분양 등 5-6가지 조건을 수용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가 상가 선분양 등 일부 조건을 받아들여 서진건설 측이 '조건 없는 이행보증금 일시 납부' 의사를 밝혀온 것이다.

협상의 장애물이었던 사업 이행보증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광주도시공사와 서진건설은 이제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광주시는 이달 중 광주도시공사와 서진건설이 본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광주시는 양사가 본계약서에 '사업 이행보증금을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본계약은 자동 파기된다'는 문구를 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진건설은 어등산 부지 약 41만7000㎡에 5643억원을 투자해 휴양문화시설(식물원, 스포츠센터, 영화관, 파크골프장 등), 숙박시설(특급호텔 160실, 레지던스 314실), 대규모 이벤트 광장 등을 포함한 관광 단지를 지을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효동 665-29)

한일솔라에너지

모던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